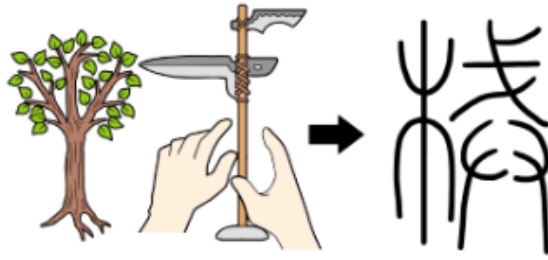


3(2)  
-  
31

회의문자①



械

기계 계:

械자는 '기계'나 '기구', '연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械자는 木(나무 목)자와 戒(경계할 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戒자는 양손에 창을 받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무기'라는 뜻으로 쓰였다. 械자의 유래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나무로 만든 '형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械자에 '(형틀을)채우다'나 '구속하다'라는 뜻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화살을 멀리 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械자에 '병장기'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械자가 주로 '기계 장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병장기'에서 유래한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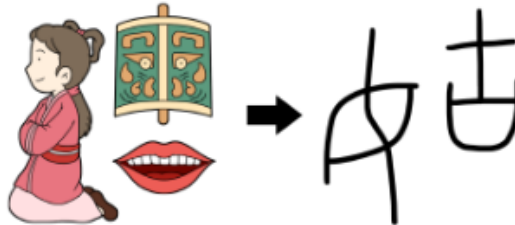
소전

械

해서

3(2)  
-  
32

회의문자①



姑

시아미  
고

姑자는 '시아머니'나 나이가 많은 여자를 통칭하는 글자이다. 姑자는 女(여자 여)자와 古(옛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古자는 방패와 입을 함께 그린 것으로 '오래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진 古자에 女(여자 여)자가 결합한 姑자는 '오래된 여자' 즉 '나이가 많은 여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姑자는 집안에 나이가 많은 여성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시집간 여자에게는 '시아머니'가 되겠다.

姑

금문

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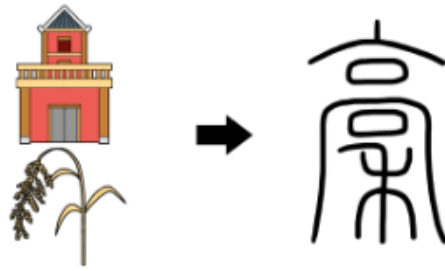
소전

姑

해서

3(2)  
-  
33

회의문자①



稿

원고/벗  
짚 고

稿자는 '벗짚'이나 '원고'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稿자는 禾(벼 화)자와 高(높을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高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으로 '높다'라는 뜻이 있다. 稿자는 이렇게 '높다'라는 뜻을 가진 高자에 禾자를 결합한 것으로 벗짚을 높이 쌓았음을 뜻했다. 다만 지금의 稿자는 '원고'나 '초고'와 같은 문서를 뜻하고 있다. 이는 글을 쓰면서 쌓인 종이뭉치를 벗짚이 높이 쌓인 것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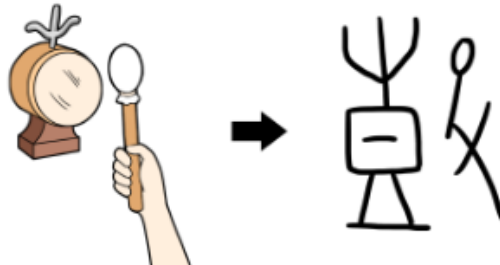
소전

稿

해서

3(2)  
-  
34

회의문자①



鼓

북 고

鼓자는 '북'이나 '북소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鼓자는 豆(악기이름 주)자와 支(가를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豆자는 장식이 달린 북을 받침대에 올려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악기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북을 그린 豆자에 支자가 더해진 鼓자는 북을 두드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전시에는 북이 아군의 사기를 높이거나 명령을 내리는 용도로 사용됐다. 그래서 鼓자는 '북'이나 '격려하다', '악기'와 같은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鼓

갑골문

鼓

금문

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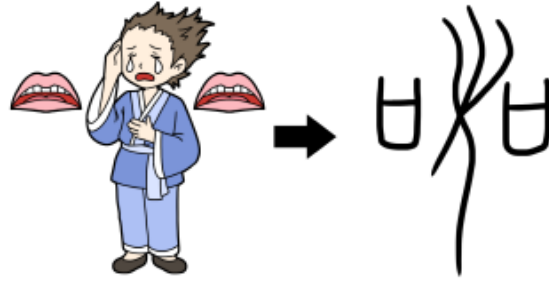
소전

鼓

해서

3(2)  
-  
35

회의문자①



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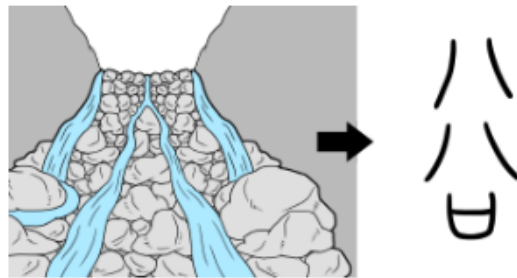
울 곡

哭자는 '울다'나 '곡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哭자는 두 개의 口(입 구)자와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哭자의 갑골문을 보면 머리를 형클어트린 사람 주위로 두 개의 口자가 哭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갑골문에서의哭자는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곡하다'를 뜻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금문에서부터는 사람 대신 犬자가 쓰이면서 지금의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6

회의문자①



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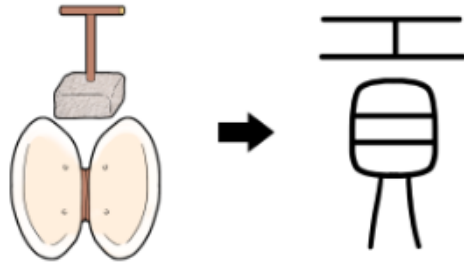
골 곡

谷자는 '골짜기'를 뜻하는 글자이다.谷자에 쓰인 八(여덟 팔)자는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표현한 것일 뿐 숫자 '여덟'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口(입 구)자 역시 물이 흘러나가는 출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谷자는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골짜기'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7

회의문자①



貢

바칠 공:

貢자는 '바치다'나 '공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貢자는 工(장인 공)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工자는 '장인'이나 '정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공물'란 조정에 바치는 재물을 말한다. 왕에게 바치는 것이니 사소하거나 허술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貢자에 쓰인 工자는 발음역할을 하면서도 '정교하다'라는 뜻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즉, 貢자는 정교하게 만든 좋은 재물이라는 의미에서 '바치다'나 '공물'을 뜻하게 된 것이다.

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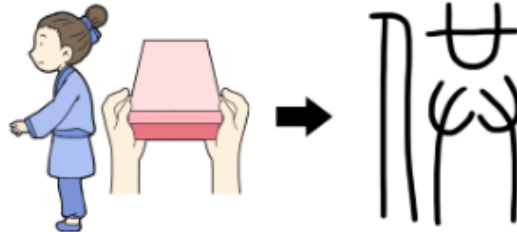
소전

貢

해서

3(2)  
-  
38

형성문자①



供

이바지할  
공:

供자는 '이바지하다'나 '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供자는 人(사람 인)자와 共(함께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共자는 양손으로 네모난 상자를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나 '바치다'라는 뜻이 있다. 供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올려바치는 모습을 그린 共자에 人자를 결합한 것으로 '자신을 바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자신을 바치다'라는 것은 헌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의 供자는 단순히 '주다'나 '공급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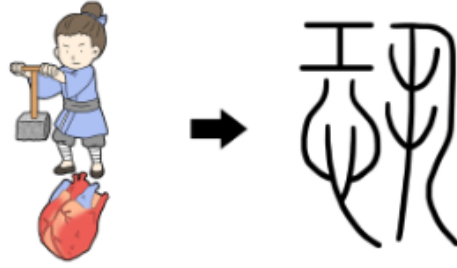
소전

供

해서

3(2)  
-  
39

회의문자①



恐

두려울  
공(·)

恐자는 '두렵다'나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恐자는 珣(굳을 공)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珣자는 흙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들고 땅을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땅을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珣자에 心자가 결합한 恐자는 마치 달구로 심장을 내리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사람이 놀라거나 공포에 떨게 되면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된다. 恐자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달구로 땅을 내리치면 '쿵' '쿵'하고 소리가 나듯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뜻이다.

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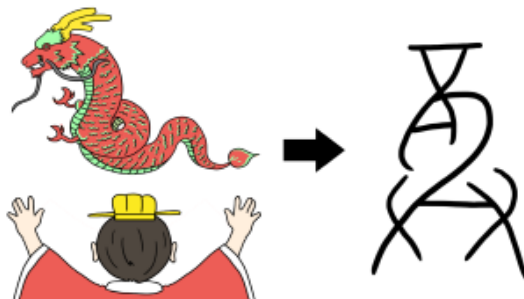
소전

恐

해서

3(2)  
-  
40

회의문자①



恭

공손할  
공

恭자는 '공손하다'나 '받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恭자는 共(함께 공)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共자는 양손으로 물건을 받드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본래 '공손하다'라는 뜻은 龍(용 룡)자가 들어간 龕(공손할 공)자가 쓰였었다.

다. 갑골문에 나온 恭자를 보면 용을 양손으로 떠받드는 龕 모습의 恭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경배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중국에서 용은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신성시됐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용을 받드는 모습으로 그려져 '삼가다'나 '공손하다'라는 뜻을 표현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가 간략화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恭

갑골문

恭

금문

恭

소전

恭

해서